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 순종하는 이스라엘

한줄요약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다.

도입

사람은 혼자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반드시 다른 것에 도움 받기를 원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누군가가 돕는다 하더라도 도움을 받기 보다는 혼자 힘으로 하려 합니다.

이런 인간의 습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는 기도하며 간구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있기 때문이야

1)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이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입성 전 아말렉을 이겼고 가나안 안에서도 강대한 나라였던 아모리왕 시혼과 바산왕 옥을 이겼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을 보호하고 이기게 해 주시며 가는 길 마다 이적을 보이셨던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 눈 앞에 보이는 여리고는 예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에게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그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손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직접 싸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옛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네 싸우지 말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지시한대로 빙빙 돌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2) 순종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도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1절을 보면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성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고 그들을 넘겨주신다 합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했고 실제로 여리고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우지 않고도 무너뜨려 그 성을 손쉽게 정복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순종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당장에서 이스라엘이 성벽을 둘 때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도 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최악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더 최악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준다고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처: 엑스포지멘터리 - 여호수아, 두란노 HOW주석 05_여호수아_어떻게 설교할 것인가_두란노 아카데미

여호수아 14장 8-15절

갈렙의 신앙

한결같은 믿음 /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한줄요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도입

모든 사람들이 No할 때 혼자 Yes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용기있는 사람일 겁니다.

어떠한 사안에 모두가 아니라 할 때 맞다고 할 수 있는건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대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일텐데 오늘 갈렙은 과거 12정탐꾼 중 자신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두가 혹평하며 절망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1) 한결같은 믿음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나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았습니다. 갈렙은 자신은 아직 청년들처럼 전 쟁할 수 있으며 지난 날 모세와의 약속을 회고하며 약속한 대로 정복해서 취할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갈렙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상당히 장수한 편이었고 그 나이까지 정정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갈렙은 45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목격하는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시험에 들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갈렙은 이렇게 땅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 할 일은 아낙자손을 몰아내는 일이었죠.

그는 자신이 취할 땅을 아낙자손이 있는 산간지방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12정탐꾼의 혹평이 이 아낙자손의 모습을 보고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들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면 갈렙은 그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갈렙은 아낙자손이 지배하고 있는 헤브론을 공격해 승리했고 이는 갈렙의 믿음과 신뢰에 대한 보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가 갈렙을 보며 본 받아야 할 점은 그가 믿음과 열정이 있되 그 믿음과 열정이 향하는 곳이 하나님을 가장한 자신의 욕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향했다는 점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사람보다 두려워 했으며, 하나님만 함께해 주신다면 나이와 육체적인 제한이 결코 한계가 될 수 없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올바르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실 것이며, 갈렙과 같이 거침없이 의심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24절

믿음의 결단

언약확인 / 결단

한줄요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있어왔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누릴 수 있다.

도입

엄청 사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구입하고 몇 달간은 그 물건을 애지중지 하다.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더 이상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점이 옵니다. 근데 이건 물건 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 익숙함이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경우도 생기게 합니다.

1) 언약확인

이 당시의 이스라엘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마치 아이들이 너무 익숙하고 친근한 부모님에게 투정을 부리며 반항하듯 감사한줄 모르고 계속해서 원망과 죄짓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힘을 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이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을 알았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그들 스스로 결단하게 하게 위해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의 신들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모두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택할 기회도 줍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아모리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기에서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을 직역하면 <너희 눈에 악하게든>이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때부터 이일을 계획했고 여기까지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며 그들에게 강요가 아닌 선택을 하게 합니다.

2) 결단

여기에 여호수아는 자신과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먼저 결단합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백성들과 결별할 수 도 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백성들의 대답은 다른 신을 결코 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근거는 그들이 체험한 여호와의 권능과 구원과 사랑입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재도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인생을 맡기는 결단을 한 것이며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것이라는 것을 맹세하는 것 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벌어질 일들에 대해 경고하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여호수아는 점진적으로 강도 높게 이스라엘의 충성 맹세를 받아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 만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이시지만 비인격적이지 않으시고 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되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신뢰할만하지 않은 우리를 늘 신뢰해주시며 계속해서 견인해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절 이스라엘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결단하여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2장 8-15절

다음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 다음세대

한줄요약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다음세대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도입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생각, 의식, 문화 등 많은 것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사람들은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모으고 세상의 변화에 발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현대 교회는 세상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 많은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정체성을 잃어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많은 이슈들에 대해 수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를 두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옳게 된 방향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현상은 현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일어났고 이런 이야기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1)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목격한 세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다음세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못하는 세대였다는 것이죠. 실은 이들은 하나님을 아예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상태는 아니었을겁니다. 단지 주변에 잘 나가는 나라의 힘과 그 힘의 근원이라 생각하는 그 나라의 신들을 보며 “변화”해야 한다 생각한 결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기자”라는 결론을 내리며 여전히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생각했을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좋아하시는지를 구별 못하는 상태였음을 이후의 이스라엘의 행동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대로” 행동했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그들로 시대에 더 트렌디한 것을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여겨 여호와를 버리고 이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반역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향한 보호를 거두시고 그들의 손에 노락을 당하게 하셨으며 모든 대적들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 보호받지 못하니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 다음세대

그럼 이들이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다음세대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란 전설의 무용담에 근거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어떠한 인물을 책으로 만난 사람과 직접 그 사람을 경험한 사람과는 판단이 완전히 다르듯이요.

현대 교회도 다음세대를 생각한다면 세상의 문화의 트렌디함을 따라가기 보다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는데 제일 우선과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세대를 바라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전 세대의 가르치지 않는 책임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세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분명히 다음세대를 가르치지 않은 전 세대의 책임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세상의 좋아보이는 것을 접목하는게 힘쓰기 보다는 다음세대에

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연구와 노력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히 하며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처: 엑스포지멘터리 여호수아, 두란노 HOW주석 05_여호수아_어떻게 설교할 것인가_두란노 아카데미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여호수아
두란노 HOW주석 07_사사기_어떻게 설교할 것인가_두란노아카데미, 엑스포지멘터리 사사기